



교섭속보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4차 산별현장교섭 보고]

건물투자는 속전속결 임금인상은 지지부진

▲ 명절수당 인상 - '정액으로 지급하자' ▲ 위험수당 인상 - '고대가 제일 많이 지급'

4차 산별현장교섭은 노사 공동연구 용역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어 보고회를 겸하는 자리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교섭에는 노사대표위원 및 교섭위원들이 자리했으며, 노측은 안암병원 이명숙 대의원, 구로병원 윤정호 문화부장, 보건의료노조 송혜미 법규부장, 김현근 법규부장, 이성민 법규부장, 서울본부 이근웅 사무국장, 이재훈 조직부장이 참관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본부 간부들이 매주 교섭에 참관하며 고대의료원 교섭을 주목하고 있다.

▲ 명절수당 인상요구에,

노측 교섭위원들은 명절수당 인상에 대해 발제하며 '저 연차 직원들은 타 병원보다도 적은금액으로 명절을 쇠야 한다.' 고 말하며 직원들의 고충을 전달했다.

그러나 사측은 정액제로 지급하는 병원들을 열거하며 '우리병원은 %로 지급되는 만큼 비용부담이 크다.', '명절수당의 취지에 맞게 정액으로 지급했으면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 위험수당 인상요구에,

사측은 '직무와 상관없이 전 직종 지급하고 있다. 매월 2회다. 큰 금액이고 경희대 37,000원, 이대 60,000원, 한양대와 연세대 25,000원을 지급해 우리병원이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다.' 고 말하며 '총액에 포함해서 조건부로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에 노측 교섭위원들은 '병원 규모가 커지고 환자수가 늘어나면서

감염, 폭언폭행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을 요청했다.

10년을 요구했지만, 어쩔 이렇게 평계도 안 바뀌는지.

정액제로 임금을 깎으려 하지 말고 직원 사기진작에 투자하라!

▲ 2016년 : 기본급이 자꾸 높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급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나눠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 2017년 : 저희도 많이 지급하면 좋는데 의료원 여건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액제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향후에 노사가 정액으로 전환시키는 논의도 필요하다.

▲ 2018년도 : 의료원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배분하는 것인데 현재는 답을 드릴 수가 없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위는 명절수당 요구에 의료원이 지난 3년간 밝힌 입장이다. 소나무도 아니고 꺾꽂하게 변함이 없다. 더구나 정액제전환은 연차가 더해질수록 오히려 수당이 낮아지게 된다. 결국 지금의 명절 수당 제도를 개악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직원들이 명절에 어깨 펴 정도, 직원만큼은 잘 챙겨준다는 뿌듯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요구이다. 그럼에도 경영의 부담으로 일관한다면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에 만족하며 일을 하겠는가. 이제 오래 된 요구들을 털어내어 직원들에게 뿌듯하고 애사심 넘치는 병원생활을 선사하자!

고려대학교 의료원, 문화개선의 빛을 찾다!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력문제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보고회 진행

이번 진행된 보고회는 지난 2017년 중앙노동위원회 합의사항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회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에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력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 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뷰를 바



탕으로 노사 인터뷰를 더해 약 7개월간의 연구 끝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연구는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의 총괄아래 약 9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각 분야별 연구를 맡은 담당 교수가 보고를 맡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를 마치며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오늘 발표를 들으며 노사문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사가 같이 잘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은 “연구결과가 듣기에 좋은 부분도 있고 불편하신 부분도 있다.

이제 노사 이익중심적으로 가기보다 의료원 발전 차원으로 강약조절을 해서 논의해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좋은 방향으로 실행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보고회를 통해 각 분야별 연구에 대한 결과는 차기 선전문을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노동존중 사람존중 고대의료원 만들기 - 수당 인상 및 신설(4)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야간전담 수상 신설 (N근무 당 50,000원 지급)

■ 재주는 간호사가 부리고, 돈은 의료원이 가져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소정의 간호간병료에 추가로 인력배치에 따른 정액수가를 가산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6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환자 입원 1일당 28,280원씩 가산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동입원료 수가 조정(원가를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 및 간호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한 조정)이나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수가를 지급하는 이유는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의 확산을 위한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도 야간전담 간호사제도 운영 시 특별수당 지급과 야간전담 가산수가 수입의 일부를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병원은 수가 수입을 이에 대한 개선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야간 근무는 2급 발암물질로 판정될 정도로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느 간호사든 자원해서 근무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간호사들에게 야간 전담을 강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구분	내용
급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56조 ○ 특별수당 : 야간전담제 수당을 특별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전담 가산수가 수입의 일부를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타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야간전담 제도 운영 시 특별수당 지급 현황

병원	수당
한양대	월 30만원
서울시서남병원	월 40만원
백병원	월 50만원
서울시북부병원	월 50만원
서울시동부병원	월 7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일 35,000원(월 525,000원)
서울 & 여의도 성모병원	일 5만원(월 75만원)

정부에서는 지침으로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담당 간호사들의 처우와 급여에 대한 분배를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아직까지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다! 이제 이들에 대한 정확한 분배가 필요하다!